

어등산 개발 또 표류 광주시 직접 나서라

민관위원회 회의 개발계획안 결론 못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대립 속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가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위원회까지 꾸렸지만 과거 11년간 반복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며 사업을 떠맡기고 시는 책임을 방기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 민관위원회를 열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해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등을 결정하지 못했다.

민관위원회는 전문가 4명, 시민단체 4명, 주민대표 9명, 시·구의회 4명, 관계기관 5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내에 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어등산 개발을 찬성하는 인근 주민들도 민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위원 구성 초기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우선 공모지침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테마파크와 특급호텔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여부에 따라 배점을 더 주고, 지역상권 상생방안 분야의 배점도 높인 것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주변 지역 및 주민을 고려한 활성화 계획도 배점을 늘렸다. 이 밖에 로컬푸드 매입·판매 계획을 밝히고 개발이 사회환원 규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가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틀을 합의하는데 여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민관위원회는 현재 구체적인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안은 상가 최면적용을 현재 롯데아울렛 수완점과 비슷한 규모인 7만7000㎡으로 축

소하고, 광주형 숙박시설과 힐링문예타운, 의병기념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또 2안은 상가시설 면적을 9만5867㎡~2만3140㎡ 이하로 제출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3안은 상가면적 등 제한 규정 없이 민간사업자가 자율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사업자 심사 과정에 토지 가격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는 방안이 반대 의견도 많았다. 시가 주민에게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사업자에 땅을 되팔면서 '가장 돈을 많이 제시한 업체'에 점수를 주는 것은 공공개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 3곳 가량이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가 산정 부분의 배점 방식은 향후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의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위원회에 참여하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민관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와 방법, 일정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광주시가 '올 내 사업자 선정'이라고 말하는 등 민관위원회를 '거수기'로 여기고 있다"며 "시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사업 전반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과거 포사격장이었던 어등산 일대 41만7531㎡에 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14만4651㎡), 공공편익시설(12만7011㎡), 숙박시설(1만6123㎡),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골프장만 지난 2016년 12월 23일 일부 준공 승인돼 2017년 1월 16일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쳤다. /오광록기자 kroh@

- 통신사 해외여행객 잡기 ▶10면
-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16면
- 남도, 시간속을 걷다 ▶18면



문재인 대통령 27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 만찬 회동에 앞서 열린 차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이점미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다. ▶관련기사 3면

5·18 그대로... 헬기 띄워 '기총소사' 규명한다

국방부 5·18특조위 방안 검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헬기사격 의혹 규명을 위해 군(軍) 헬기를 띄워 실제 사격을 벌이는 검증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을 5·18 계엄군 헬기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보고서에 담은 등 5·18 계엄군 헬기사격을 공식화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격을 감행한 헬기 기종과 투입된 조종사를 특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군 헬기 사격 검증을 위한 장소로는 예

초 광주 금남로가 거론됐으나 실제 사격을 통해 얻은 총탄 흔적을 바탕으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대신 군 헬기사격장 가운데 한 곳을 정해 광주 금남로(전일빌딩 주변)와 동일한 조건을 설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난 육군 헬기 기종인 UH-1H(일명 휴이), 500MD, AH-1J(일명 코브라헬기) 등 3종이 모두 투입되며, 검증을 위한 군 헬기 사격장과 검증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5·18특조위 관계자는 "헬기사격

의혹 규명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 헬기를 띄워 검증하는 방안이 내부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방부 5·18특조위는 광주지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5·18 투입 헬기조종사 참고인 조사 결과와 국과수 감정보고서(전일빌딩 헬기총탄 흔적)와 별개로, 자체 실험을 통한 검증 결과와 헬기조종사 등 군 관계자 인터뷰, 군 문서 분석 등을 통해 얻은 5·18헬기사격 의혹 조사 결과를 활동이 끝나는 11월말에 작성하는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전일빌딩 10층(쪽대기총) 내부 전장파

바다, 벽면 등에서는 지난해 말 총탄 흔적으로 추정되는 파손흔적이 190여개 발견됐는데, 광주시 의뢰로 감정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헬기 사격에 의한 총탄 흔적이 유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과수는 헬기사격 흔적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이유로 5·18 당시 금남로 주변에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고, 발견된 총탄 흔적의 밀집형태가 부채꼴을 띠는 점에서 UH-1H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에 의한 '헬기 기총소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 특별법 통과·호남예산 확실히 챙기겠다" 민주당 광주시 최고위원회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광주로 총출동해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뒷받침 호남의 마음을 끌어안았다.

특히 최근 불거진 호남 SOC 예산 확대론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 호남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는 추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양향자·박범계 최고위원, 이춘서 사무총장,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추 대표는 예산협의회 앞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 세 번째 광주 방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추 대표는 "헬기사격 등 전두환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5·18의 진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5·18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고 같은 곳이며, 저에게도 정치적인 고향이다"라며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구속돼 3년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계호 전남도당위원장은 "광주는 민주당 정권 창출의 전진지"라면서 "호남은 보수정권 9년 동안 철저히 소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호남을 위한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창현 광주시장은 "추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든든하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9월 30일(토) ~ 2018년 3월 30일(금)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큐슈, 야마구치)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운항 / 화, 금, 일요일 출발)

출/도착시간 무안(18:20) - 기타큐슈(19:30), 기타큐슈(20:20) - 무안(21:30)

[실속] 북큐슈 549,000원부터
[실속] 야마구치 559,000원부터
[폼격] 야마구치 629,000원부터
북큐슈 온천호텔 559,000원부터

무안 ↔ 기타큐슈 전세기 운항

9. 30(토) ~ 10. 9(월) 추석연휴 매일!!

호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2(월), 10/3(화), 10/6(금)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 ~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폼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폼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폼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7. 11. 17(금) ~ 2018. 5. 18(금)

하오일 출발출/도착시간무안(08:05)→다낭(10:40), 다낭(14:40)→무안(20:30)
금오일 출발출/도착시간무안(21:35)→다낭(00:10),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 · 호이안 · 1일 자유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 · 노음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99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노립 · 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94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포함사항은상품에 따라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